



◇보통 구경보 볼은사에서의 일출경관.

업장 씻어내고 '새소망 발원'

전국사찰 신사년 해님이·해맞이 법회 다채

새해 첫 아침, 절에서 해 맞으며 모두가 행복한 불국토로 나아가자.

제행무상(諸行無常)의 한 해를 진심으로 참회하는 해님이 법회와 진정한 불자로 거듭남을 서원하는 해맞이 법회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사회세계를 염원해 보자.

경진년의 목은 때를 털어내고 새 원력으로 신사년 새해를 맞이 위한 원단 해맞이 법회가 철야정진기도와 1080배, 범종 타종 및 촛불놀이 성지순례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몇 년간 계속된 경제난으로 실의에 빠진 불자들은 산사에서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며 희망찬 새해를 발원할 수 있다. 낙산사 석굴암 보리암 등 동해안과 남해안에 위

치한 사찰들은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유명한 해맞이 명소가 되었다. 예전처럼 화려한 행사는 없지만 조촐한 가운데 자신을 되돌아 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전국 주요 사찰에서는 12월26일부터 새해 1월2일까지 성도재일주간 기도법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31일 저녁 연등과 촛불을 밝히고 철야정진기도를 하며 범종 타종, 해맞이 법회 등을 병행하면서 어느새 보다 차분한 새해를 맞이할 전망이다.

올 해의 마지막 해를 가장 늦게까지 볼 수 있는 서·남해쪽 사찰들은 해님이 법회를 통해 목은 해를 회향하면서 새 해를 맞는다.

전남 해남 미항사는 31일 저녁 마을 주민들과 함께 불화대에 불화를 피우며 해님을 한 뒤 땅 끝 사자봉에서 일출을 맞이할 예정이다. 해남 대문사는 31일 철야기도를 병행하고 노승봉서 해맞이 법회를 개최한다. 제주 관음사포교당도 26일부터 새해 1월2일까지 성도재일주간을 맞아 연등공양 기도법회를 병행한다. 전북불교회관은 새해 첫날 김제 심포해변에서 신사년 소원성취 기원법회를 갖고 금산사에서 철야정진을 한 후 새해 오후3시 회관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갖는다.

해맞이 법회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울릉도의 직각종 금강원은 31일 밤 11시부터 아침까지 새해맞이 불공을 올리고 합동 해맞이 법회를 갖는다. 제주 보문사는 31일 저녁 9시부터 철야공양정진에 들어가 재야 타종을 한 후 새해 첫날 인근 용머리해안에서 해맞이 불공을 올린다. 특히 제주 약천사는 31일 저녁 새해맞이 1080배 참회 정진법회를 갖고 송악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갖는다.

육지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인 경남 울주 석남사와 경주 석굴암은 31일 밤 재야·점등법회를 갖고 다음날 아침 해맞이법회를 가질 계획이며, 일출의 명소인 양양 낙산사도 31일 자정에 타종을 한 뒤 새해 아침 7시 일출에 맞춰 의상대에서 해맞이법회를 개최한다. 속초 보광사도 31일 저녁 경내에서 캠프 파이어와 촛불놀이를 한 뒤 다음날 아침 동해에서 해맞이를 할 계획이다.

계룡산 감사는 31일 오후 6시 예불을 시작으로 '신사년 새해맞이 삼불봉 일출 등반 및 성도절 철야 용맹정진법회'를 병행하고 이어 밤에는 불화 점화 및 문화행사, 자정 타종의식을 갖는다.

이밖에 서울 봉원사와 삼보사는 새해 1월 2일 성도절을 기념해 새해 첫날부터 철야정진 기도법회를 갖는다. 불교방송은 31일부터 1박2일간 서산 간월암, 진전 보탑사, 음성 미타사로 새해맞이 성지순례를, 전국염불만일회는 건봉사 낙산사 참배를 떠난다. 아동청소년수련원은 31일 금오산 정상에 올라가 새해 일출을 보면서 소원성취 기원법회를 병행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간월암의 해님이 정면.

주부 신행담

사경의 공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결혼이다. 하지만 나는 어리석게도 처음했던 결혼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 첫 남편의 성격이 다칠 질인대다가 나도 아직 미성숙한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해심도 많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충돌이 잦아졌고 마음의 상처도 커져 5년을 살다가 결국에는 합의 이혼까지 가는 과정을 맞게 됐다.

이후 나는 절대로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던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남편 역시 결혼에 실패

편해지고 어떤 고통도 이겨내갈 수 있는 이쁨모를 힘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자신도 고부갈등으로 힘들어 <반아심경> <금강경> 등을 사경하며 고통을 이겨내갈 수 있었다고 위로해 주었다.

다음날 당장 나는 종로 조계사 근처에 있는 불서 백화점에 가서 <반아심경> 사경집을 사왔다. '마하반야바라밀다...' 한문으로 돼 있는 반아심경의 글자 한자 한자를 10번씩 정상을 다해 써내려 갔다. 밤이나 설거지를 하다가도 틈만 나면 사경에 몰두했다.

무엇인가에 몰두하다보니 고통도 사라져 갔다. 1달이 넘어 책 한권을 다 사경하자 같은 책을 다시 구입해



그림·이준석

"역경 이겨낸다" 자신감 생겨

한 이혼남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잘 알아서인지 처음에는 존중해 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나 고부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혼녀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마구 욕설을 퍼부며 시집살이를 시켰다. 그래도 두 번째는 실패할 수 없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참고 넘겼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시어머니의 학대는 심해졌다.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날이면 찾아와서 '내 아들의 신세를 너 때문에 망쳤다'고 하면서 욕을 했다.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또다시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점점 나락으로 빠져 가고 있을 때 사촌언니에게 고민을 털어 놓자,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언니는 나에게 사경의 공덕에 대해서 알려 주었다.

사경을 집에서 열심히 하면 마음이

사경을 했다. 이렇게 6개월에 걸쳐 <반아심경>만 7권을 사경했다. 7개월째로 접어드는 밤에 스탠드를 켜놓고 사경을 하면서 문득 어떤 역경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남을 느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마음은 점점 편해졌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원래 저렇게 사신 분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자'는 생각으로 더욱더 잘해 드리려고 노력했다.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했는지, 평소 절에 나가서던 어머니께서 하루는 집에 들렀다가 내가 사경하는 모습을 보자 좋아하셨다.

아직도 시어머니와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것을 단순히 주어진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경의 공덕이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사경에 임하고 있다.

장화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 주최 | 특징 | 연락처 |
|-----------|--------------|---------------|
| 양양 낙산사 | 의상대서 해맞이 | (033)672-2448 |
| 속초 보광사 | 촛불놀이 | (033)632-9800 |
| 울릉도 금강원 | 범종, 합동법회 | (054)791-2465 |
| 울주 석남사 | 재야·점등법회 | (052)264-8900 |
| 남해 보리암 | 철야 기도 | (055)862-6115 |
| 해남 미항사 | 방불 사자봉 일출 | (061)535-3521 |
| 해남 대문사 | 노승봉서 해맞이 | (061)534-5502 |
| 공주 감사 | 불화대 점화, 문화행사 | (041)857-8981 |
| 서울 봉원사 | 성도절 철야정진 | (02)392-3008 |
| 서울 삼보사 | 철야정진 | (02)352-6406 |
| 경주 불국사 | 석굴암 철야정진 | (054)746-1472 |
| 제주 보문사 | 용머리 해맞이 불공 | (064)794-3088 |
| 제주 약천사 | 1080배 참회정진 | (064)738-5000 |
| 제주 관음사포교당 | 연등공양 | (064)722-2829 |
| 하동 청소년수련원 | 금오산 정상서 기원법회 | (055)883-8156 |
| 전국염불만일회 | 건봉사 낙산사 참배 | (02)732-1206 |
| 불교방송 | 간월암 등 3사 순례 | (02)705-5301 |
| 전북불교회관 | 심포해변서 소원성취기도 | (063)277-3497 |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짤 수 있는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안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희망과 포부를 나래에 실어 무지개 편 하늘에 꿈을 드리우는 겁니다.

《《 검을 주고 받는 마음이란...》》

- 부모님께 바치는 검의 의미 : 넓고 깊은 자애로운 마음입니다! 약한 질병 자르기에 무병장수하시라!
- 형제에게 드리는 검의 의미 : 우애의 정 길이 간직하시고 금가는 마음 자르소서!
- 친구에게 전하는 검의 의미 : 벗이여! 우리의 우정 지켜 나가소서!
- 자손에게 내리는 검의 의미 : 모든 풍파에도 좌절하지 말고 약한 유혹을 자르며 굳건히 세자리를 지켜 나가소서!
- 재자가 스승에게 드리는 검의 의미 : 항상 의롭게 빛나는 정신 길이 보존하시고 약해지는 마음 자르소서!
- 스승이 재자에게 내리는 검의 의미 : 온전한 마음 자르고 밝은 지혜로 큰 세상에 유익하시라!

삼 정도도검
본사·공장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99-1
TEL : (032) 677-0085 (대) (032) 674-0081 ~ 3
FAX : (032) 677-0084

스님! 불자님께 알립니다.

빈도는 상종초막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며 살고 있는 스님입니다. 수십년 동안 생악을 연구 개발하여 왔으며 현재는 최신시설과 공법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생악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익이 있게 되었습니다. 빈도가 부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소유하고 싶지 않음에 즈음하여 필요한 스님 불자님께 아래 생악제품을 무료로 보시하겠습니다. — 무료로 보시하는 생악입니다. —

영지버섯 환 · 용량 : 5개월 분 · 소비자가격 35만원
영성불로초려하여 현대의학에서도 입증하고 KBS, MBC 등에 병영, 대한 약학회 정제석학 등이 임상 실험한 것입니다.
치매 예방 및 치료 기력 보강, 간헐성, 고혈압, 저혈압, 당뇨 등에 필요한 제품

강원 인진속 환 · 용량 : 6개월 분 · 소비자가격 30만원
긴과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배변을 도울고 소화를 촉진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건강과 활력을 줍니다. 여성들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드립니다.

홍학씨 환 · 용량 : 6개월 분 · 소비자가격 35만원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하고 남·녀 비만 제거 방지,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한다. 경년기 및 노년기에 벽을 흔든다.

오령 환 · 용량 : 6개월 분 · 소비자가격 35만원
현대의학에서도 해결 못하는 생악으로 무릎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진귀한 생악입니다. 국내 대학 한방 의료진이 입증하고 KBS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에 방영된 부작용과 내성이 전혀 없는 두통치료제 제품입니다.

만령단 환 · 용량 : 6개월 분 · 소비자가격 120만원
신중 사찰에서 전수 내려오는 최고의 비법 생악입니다. 옛말에 불치의 병은 만류생악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에도 못그치는 불치의 각종병 환군에 꼭 필요한 생악입니다. (예: 암종류, 치매, 에이즈, 각종 불치병) 생악 100여 종류로 밀도가 집합하여 혼합하여 만든 생악입니다.

스님, 불자님 부담없이 연락 주십시오. 정성껏 보내 드립니다.

- 본 제품은 황정당국의 허가 및 한약 심의를 거쳐 최신 자동시설로 생산되었으며 2년간 변질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고급 포장 되었습니다.
- 본 제품을 1인 1통씩만 사용하고 300명만 나눠 드립니다.
- 어린이를 생악 및 스님께는 언제든지 무료로 보시합니다. (임시인 증명, 승려증 사본 첨부)
- 본 제품은 무료로 보시하오나 국가에 납입하는 세금 10% (부가세)
- 우편 수수료 2,500원은 본인이나 부담해야 합니다. (예: 배송당첨시 세금 20~30% 공제)
- 필요한 분은 아래 사서함(주소)으로 주소, 생악, 제품명, 전화번호를 기입하신 후 우편 연락주시요
- 세금 및 우편 소포 금액은 아래 은행으로 송금

농협 20005-02-07691 예금주 : 이금 열 새마을 금고 4109-03-007720-1 예금주 : 이금 열
보내실 곳 : 서울 청량 우체국 사서함 181호

한국 간호 의료 봉사단 031-528-4822 017-737-4821

현대 불교 신행담 011-7337-8881